

초등학교 입학한 내 아이 학교생활 적응 어떻게

부모가 알아야 할 학습법

스스로 준비물 챙기기... 자립심부터 키워라

공부 부담 주지 않게 자주 대화 나누도록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다. '전환점'이란 단어가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

이제까지 가족 내에서의 생활이 전부였거나 어린이 집에서 사회 생활의 일부를 맛보았다면 학교 생활을 통해 이전 본격적인 '사회적 인간'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물리적인 환경만 보더라도 조그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넓은 운동장이 딸린 학교가 대신한다. 또 많아야 20~30명인 친구들도 섰배의 수까지 합치면 수백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아이의 부모 역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조직생활을 처음하게 되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일남 장학사는 "아이들이 자유분방한 생활이 아닌 규칙과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특별히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부모들이 챙겨야 할 일들을 짚어본다.

◇스스로 하는 습관 기르기=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의 출석은 어린이집과 달리 의무이기 때문에 오전 7시30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밤 10시 이전에 잠이 들 수 있게 한다. 용변 지도 역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가끔적이면 아침 식사 후, 등교 전에 용변을 보도록 한다.

준비물의 경우 부모는 보조자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것은 아이의 자립심을 해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알릴 일을 직접 맡겨 주고, 설명을 요청한 뒤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길러준다. 부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것과 가정통신문을 숙지해 아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집단 생활 적응하기=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따르는 것, 화장실이나 수돗가에서 줄서는 것, 학급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 등 학교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단보도 건너기 교육.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아이에게 숙지시킨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하는 행동이나 남의 허물을 크게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낮선 환경이나 새로운 친구들과 인하여 아이가 받게 될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부모가 경청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그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듣고 함께 해결한다. 최소한 학기 초에는 학원 등 과외를 시키지 말고 학교에만 적응토록 하는 것이 좋다.

◇학교 밖 생활 가르치기=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등 지키기, 자동차 조심하며 걷기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아이와 함께 학교를 미리 방문, 놀이 시설 위치와 이용 방법, 교실 출입문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집에서 학교까지 쉽고 안전하게 가는 길과 교통 질서를 지키는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해주는 것이 좋다.

걸어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또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다. 낮잠을 1시간 정도 재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리에 통증을 호소할 때는 따뜻한 물로 씻은 다음, 주물러 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삼팔기자 camus@kwangju.co.kr

낮선 환경, 과외보단 학교생활 적응이 우선
안전한 등교길·교통 질서 등 직접 가르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야



자신있게 말하고 귀 기울여 듣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엄마에게 다시 그 내용을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기 훈련을 시킨다. TV를 보고 아이에게 내용을 말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소리내어 읽기

입 안에서 오물오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책을 크게 소리내서 읽도록 한다. 부모는 발음이 틀렸거나 잘못 읽은 대목을 수정해 자신감을 심어준다.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글씨 쓰기를 다 배운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읽기'와 '쓰기'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바탕으로 쉬운 것부터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 크게 읽고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써본다.

예술과 복습

학교 공부를 앞서가지 않도록 한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뿐이다. 예술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맞추고,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복습이 되도록 한다.

도서관 이용하기

독서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책들을 최대한 이용한다.

교육방송 시청하기

교육방송을 이용해 과외 학습을 부담을 줄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맞출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스스로 골라서 꾸준히 보도록 한다.

<참고= '입학준비 차근차근' 광주시 서부교육청>

<p>광고점수만내</p> <p>수표</p> <p>652-7544</p>	<p>주유소매매</p> <p>1.811-875-1170</p>	<p>영문공인통역사</p>	<p>미치부동산</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수표</p> <p>652-7544</p>	<p>미치부동산</p>	<p>영문공인통역사</p>	<p>미치부동산</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수표</p> <p>652-7544</p>	<p>미치부동산</p>	<p>영문공인통역사</p>	<p>미치부동산</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수표</p> <p>652-7544</p>	<p>미치부동산</p>	<p>영문공인통역사</p>	<p>미치부동산</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
<p>수표</p> <p>652-7544</p>	<p>미치부동산</p>	<p>영문공인통역사</p>	<p>미치부동산</p>	<p>부동산 경매 전문회사</p>